



2/4분기 상장기업 경영실적 둔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한은의 '2/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'에 따르면 원/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.

-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.1%로 2010년 증가율 19.0% 대비 5.9%p 하락하였으며,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각각 전년동기대비 2.5%p, 0.9%p 낮아진 5.5%, 5.6%를 기록함.
-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이자보상비율¹⁾은 전년동기대비 138.5%p 하락한 432.0%를 기록하였으며,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인 기업 비중은 30.2%로 4.1%p 늘어난 반면, 500%를 넘는 기업 비중은 44.1%로 4.0%p 줄어듦.
- 특히, 내수기업의 경우 2011년 2/4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12.0%로 전년동기대비 2.4%p 하락하는데 그쳤으나, 수출기업의 경우 14.2%를 기록하여 9.1%p 하락함.
 - 한은은 2011년 2/4분기 원/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기업 영업환경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었고, 지난해 같은 기간 높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함.

■ 2011년 상반기 현금흐름의 경우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, 2/4분기 현금흐름보상비율도 전년동기대비 5.5%p 낮아짐.

- 2011년 상반기 중 현금흐름은 영업 및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유입이 감소하고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순유출로 전환됨.
-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수입으로 단기차입금과 이자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금흐름보상비율도 2011년 2/4분기 중 44.9%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.5%p 하락함.

(2011년 2/4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, 한은, 9/21)

1)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임.